

주요 내용

■ 對동남아 수출 호조의 의미와 과제 ■

대동남아 수출 호조

- (현황) 올해 1/4분기 對동남아 수출, 특히 금융위기를 겪었던 말레이시아(36.7%), 인도네시아(17.7%), 태국(45.6%) 등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
- (배경) 각국의 내수 진작 및 미국의 호황 지속 등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가 작년 4/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음

의미와 전략

- (의미) 동남아 시장은 ▲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이며 그 증가세가 급속하고, ▲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對동남아 수출 호조는 우리 경제에 청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함
- (전략) 미국 경기 불안,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주변 경제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, 2000년경 동남아 수입증가율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對동남아 수출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

과제

- (수입 규제 대응)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관세 인상 및 반덤핑 관세 조치에 유의(특히 철강, 화학제품, 섬유 및 의류, 전기·전자 제품 등)
- (시장 잠재력 고려) 시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 선 시장 유지 전략, 무역과 투자의 연계, 既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강화 등이 필요함
- (정부 차원의 협력) 정부간 협력기구 및 공적개발원조 기금 등의 활용

對동남아 수출 호조의 의미와 과제

황 동 언

對동남아 수출 호조

- (현황) 올해 들어 對동남아시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
 - 특히 금융위기를 겪었던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
 - 올해 1/4분기 對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.6% 증가하였으며, 말레이시아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6.7% 증가하였음
 - 동남아시아로의 산업 설비 수출 역시 증가 추세로서, 對말레이시아 산업 설비 수출은 작년 1/4분기 300만 달러에서 올해 1억 4,600만 달러, 대만의 경우 2,100만 달러에서 2억 5,300만 달러로 증가함

< 한국의 對동남아시아 국가 수출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	필리핀	싱가폴	말레이시아	인도네시아	태국	베트남
1998	28.3(8.9)	40.6(-29.9)	36.0(-17.3)	17.8(-49.6)	14.4(-35.4)	13.6(-15.1)
1999.1/4	7.1(13.7)	9.8(-3.2)	9.6(36.7)	4.9(17.7)	4.7(45.6)	3.0(-7.8)

자료: KOTIS

주 : () 안은 전년 (동기) 대비 증감율임

- (배경)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작년 4/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
 -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각국의 내수 진작 정책이 지속되어 그 효과가 점차 발생함
 - 대외적으로는 작년 10월 이후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동남아의 경제 사정이 개선되기 시작함
 - 미국의 경기 호황과 중국의 위안화 가치 유지가 동남아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함

의미와 전략

- (의미) 동남아는 97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를 주도한 신흥시장 중 하나여서, 對동남아 수출 호조는 최근 부진한 상태에 있는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임
 - 동남아는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이자, 홍콩 다음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시장임. ASEAN 4개국(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)으로도 미국, EU, 일본, 중국 다음의 주요 수출 시장임
 - 1987~96년간의 對동남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3%로,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 12%를 크게 상회함
 - 올해 1/4분기에 對동남아 수출 비중과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어, 우리 수출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음

< 對동남아 수출 관련 통계 >

	1995	1996	1997	1998	1999.1/4
총수출증가율	30.3	3.7	5.0	-2.8	-5.9
對ASEAN 4개국 수출증가율	35.8	23.1	5.3	-24.1	27.3
對ASEAN 4개국 수출/총수출(비중)	7.5	9.3	9.4	7.3	8.7
수출증가율					
對말레이시아	78.7	46.8	0.5	-17.3	36.7
對인도네시아	16.5	8.1	10.7	-49.6	17.7
對태국	32.3	9.7	-15.8	-35.4	45.6
對필리핀	23.2	27.7	36.5	8.9	13.7

자료: KOTIS

주 : ASEAN 4개국은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임

- (전략) 98년 말 이후의 경기 회복세 및 작년 동남아 국가들의 수입 급감에 대한 반등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수입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므로, 적극적인 수출 증대 전략이 요구됨
 - 미국 경기 불안,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등의 주변 환경 악화가 없다면, 올해 회복세를 보이면서, 2000년에는 수입증가율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임

< 동남아 주요국의 성장 및 수입 추이 및 전망 >

	국가	1997	1998	1999(e)	2000(e)
실질 GDP 성장률	태국	-0.4	-8.0	1.0	2.4
	말레이시아	7.8	-6.7	0.9	3.3
	인도네시아	4.6	-13.7	-3.9	3.2
	필리핀	5.1	-0.5	2.7	4.8
	싱가폴	7.8	1.5	0.6	1.8
수입증가율	태국	-13.8	-31.1	6.1	15.5
	말레이시아	1.3	-25.7	7.5	8.2
	인도네시아	4.5	-34.0	2.2	20.9
	필리핀	14.0	-17.5	17.2	23.0
	싱가폴	0.7	-18.4	3.0	6.9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; WEFA, Asian Economic Outlook

주: 1997~98 성장률 자료는 IMF, 나머지는 WEFA에 의거함

과제

-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, 각국의 차별적 상황에 주의해야 함
 -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문제가 큰 국가는 인도네시아임. 정국 및 통화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며, 특히 폭동 등의 과정에서 華人資本이 이탈함으로써 투자 회복이 가장 지체되어 있음
 -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실업률 및 기업 도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,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무역금융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
 - 베트남 정부는 98년 8월 자국 내에서 달러화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, 기업 보유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- 각국의 수입 규제 정책에 유의해야 함
 -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흑자 및 외환보유고 증대를 목표로 수입 규제 정책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. 특히 동남아 국가의 자체 생산 가능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제품, 즉 철강, 화학 제품, 섬유 및 의류, 전기·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망됨
 - 98년 중 동남아 국가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은 우리 제품은 H-형강(태국), 석도강판(인도네시아), 골심지(말레이시아)가 있는데, 98년 4월 H-형강은 31.65~44.70%, 골심지는 17.4~35.4%의 확정 관세를 부과받았음

< 최근 동남아 주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 >

	항목	내용
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 완성차, 사치품(11개 분야) 관세 인상(97.10.14) ◀ 사치품(8개 분야) 관세 인상(98.2.24) ◀ 철강·同제품의 관세 인상(98.5.6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완성차: 42~68.5%→80% - 향수·화장품·피혁 등: 20%→30% - 카메라·시계·안경·라이타 등: 5%→30% - 향수·화장품·피혁 등: 30%→40% - 넥타이·내의 등: 30%→60% - 열압연의 철판, 봉강 등: kg당 0.4바트→10% - 냉압연의 철판, 봉강 등: kg당 0.4바트→12% - 표면 가공의 강판, 강관: 10%→15% - 체인 등: 12%→20%
말레이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 重機械에 수입허가제도 도입(97.10.17) ◀ 국산품 장려, 항공기·선박 등의 대형상품 수입억제(97.12.5) ◀ 건설기계, 건재, 자동차, 이륜차 등의 관세 인상(97.10.17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기계·건재 등: 5~25%→10~30% - 완성차: 140~200%→140~300%
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 반덤핑 조치 ◀ 자국 제품과 경쟁 수입 완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對한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(98.3) - 직물 및 의류 등 완제품: 수입관세 25%, 부가세 10% - 전자·전자: 자국 제품과 경쟁 가능 완제품에 대해 40~55%의 고관세 부과
필리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 섬유제품,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 인상(98.1.2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섬유제품: 10%→15% - 자동차 부품: 3%→7%→10%(99년)

자료: 日本貿易振興會, 「JETRO白書·貿易編」, 1998年版, p. 86 및 기타 자료

주 : 승용차는 2000년까지 자유화 유예, 또는 자유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

- 동남아 국가의 시장 잠재력을 고려한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함

- 외환 사정이 호전될 경우 동남아 국가의 잠재력은 어느 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수출 시장 유지 및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함
- 현재 對ASEAN 수출시장은 일본(23.8%, 97년), 미국(20.6%)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, 주로 현지 회사 설립을 통해 진출하고 있음. 우리도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의 연계, 既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
- 현지 진출시 토착기업(정부로부터 사업우선권 획득 용이), 화교기업(광범위한 조직을 활용한 정보 수집), 일본기업(노하우 풍부)과의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정부는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함

- 경제협력위원회, 무역협의회 등과 같은 정부간 협력기구의 활용이 강구되어야 함
- 우리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(ODA) 기금 등을 활용한 對동남아 진출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음

(hde@hri.co.kr ☎ 724-4055)